



미 증시, 시장금리 하락에도 숨고르기 장세

미국 증시 리뷰

27 일(월) 미국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에 하락출발한 이후, 국채금리 및 유가 하락, 견조한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결과에 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으나 상단은 제한되며 결국 하락 마감 (다우 -0.16%, S&P500 -0.2%, 나스닥 -0.07%)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휴전 협정을 30 일 오전까지 이를 연장하는데 합의. 최초 4 일에 이어 2 일이 더해지면서 추가 휴전 연장 가능성과 전쟁 중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전망. 이집트 국가정보국 의장 디아 라슈완은 이스라엘 인질 11 명의 석방이 월요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전이 그를 통해 2 일 연장될 거라고 밝힘.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4 일 연장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에 따라 하루씩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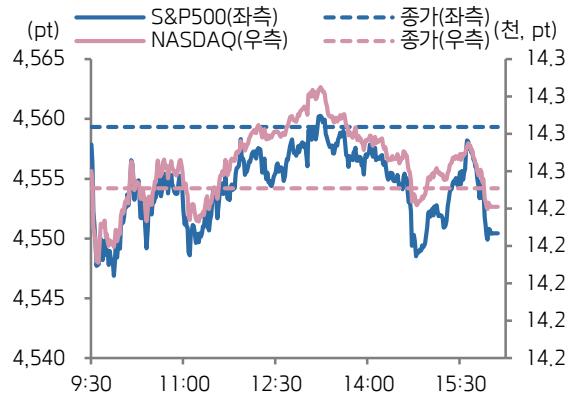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먼데이에 120 억~124 억 달러의 지출을 할 것으로 예측. 미국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98 억 달러 지출,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로 즌년대비 7.7% 증가한 103 억 달러를 더 썼다고 분석. 또한 '선구매·후결제' 방식으로 7900 만 달러(약 1031 억 원)를 소비, 전년대비 47% 증가.

미 재무부는 540 억달러 규모의 2 년물 국채와 550 억달러 규모의 5 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했으나 수요가 부진했다고 밝힘. 5 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4.420%로 6 개월 평균 수준인 4.316%를 상회, 응찰률은 2.46 배로 6 개월 평균 2.52 배보다 적었음. 2 년물 발행 금리는 4.887%로 입찰 당시 시장 평균 수익률 4.876%보다 높았음에도, 6 개월 평균 2.79 배를 하회.

미국 10 월 신규주택매매 MOM -5.6%(예상 -5.1%, 전월 8.6%)로 부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규 주택 수요에 영향. 11 월 델러스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19.9(예상 -16.0, -19.2) 역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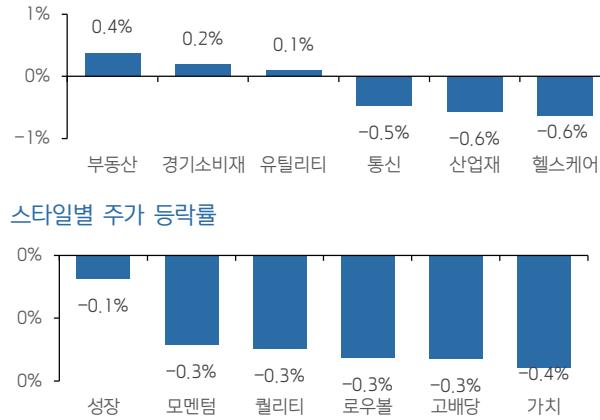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0.4%), 경기소비재(+0.2%), 유틸리티(+0.1%) 강세, 헬스케어(-0.6%), 산업재(-0.6%), 통신(-0.5%) 약세. 쇼피파이(4.89%)는 이날 의류와 보석류 등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작년보다 22% 늘었다고 밝히며 52 주 최고치를 경신, 선구매 후지불 업체 어펌(11.97%), 아마존(1.1%) 등 동반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5.66	-0.04%	USD/KRW	1,304.10	-0.17%
코스피 200	333.67	-0.1%	달러 지수	103.22	-0.18%
코스닥	810.25	-0.58%	EUR/USD	1.10	+0%
코스닥 150	1,271.49	-0.45%	USD/CNH	7.16	+0.02%
S&P500	4,550.43	-0.2%	USD/JPY	148.64	-0.03%
NASDAQ	14,241.02	-0.07%	채권시장		
다우	35,333.47	-0.16%	국고채 3년	3.687	+1.3bp
VIX	12.69	+1.85%	국고채 10년	3.762	-1.3bp
러셀 2000	1,801.15	-0.35%	미국 국채 2년	4.888	-6bp
필라. 반도체	3,739.31	-0.23%	미국 국채 10년	4.387	-8bp
다우 운송	14,903.98	-1.26%	미국 국채 30년	4.537	-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54.41	-0.4%	WTI	75.02	-0.69%
MSCI 전세계 지수	692.15	+0.11%	브렌트유	80.11	-0.58%
MSCI DM 지수	3,015.19	+0.21%	금	2035.3	+0.58%
MSCI EM 지수	980.33	-0.78%	은	24.7	+1.45%
MSCI 한국 ETF	62.56	+0.39%	구리	375.4	-0.9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6.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금리 및 달러화 하락 등 양호한 매크로 환경 조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 11월 이후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성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 개별 신규 테마 혹은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말 소비시즌을 둘러싼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센티먼트나 수급 상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 CNN의 Fear & Greed index(현재 65pt, Greed 영역)와 함께 대표적인 투자 심리지표인 AAII(전미 투자자협회)의 Bull-Bear Spread(낙관론과 비관론의 격차)는 23 일 기준 21.7pt로 써머랠리 당시였던 8 월 3 일(27.7pt)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낙관론이 올라온 상황.

수급 측면에서는 BofA의 11월 21일 데이터 기준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규모가 400억달러로 '22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유입세를 기록. 대륙별로 봐도 선진국향 주식형 펀드의 주간 유입 규모(11월 16일~22일, 국제금융센터 기준)는 12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신흥국향 주식형 펀드의 경우 직전주 3억달러 유출에서 1억달러 유출로 감소하는 등 유출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

이 중 한국은 반도체 텐어라운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 한주 동안 7.2 억달러 순유입, 4 주 누적으로는 20.3 억달러 순유입세를 기록하는 등 지수가 2,500pt 선에서 저항선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같은 기간 대만(+49.6 억달러, 4 주 누적)을 제외한 중국(-14.0 억달러), 인도(-11.8 억달러), 인도네시아(-4.1 억달러) 등 여타 주요 신흥국들보다 한국 증시에 대한 진입 매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임.

물론 선진국, 신흥국 증시를 막론하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은 매크로 여건에 따라 수시로 급변할 수 있기는 함. 또 증시 변동성 지표인 미국의 VIX 지수가 13.0pt 대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악재로 해석될 만한 미미한 재료에도 이를 빌미 삼아 증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상존. 다만,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기업 이익이 바닥을 확인한 만큼,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유출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5.0%대의 10 년물 국채금리 레벨을 경험한 아래로 일정부분 고금리 상황에 내성도 생겼다는 점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볼 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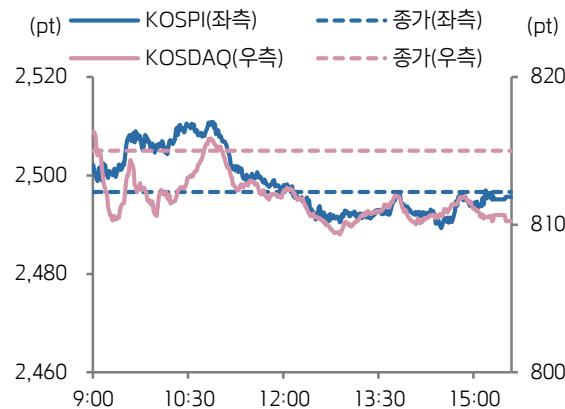
결국, 예상을 벗어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PCE 물가, 연준 인사들 발언 등 기준에 알려진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악재로 해석할 만한 재료들이 등장하더라도, 주요국 증시가 지난 9~10 월처럼 극심한 조정 압력을 받을 여지는 낮을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조기 폐장, 매크로 이벤트 관망심리 등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함에 따라 개별 종목 장세를 연출하게 만들면서 소폭 하락 마감(코스피 -0.04%, 코스닥 -0.58%).

금일에는 미국 신규주택판매 부진에 따른 금리와 달러 하락,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연장 등 양호한 매크로 환경에도,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 주중 예정된 PCE 물가, 베이지북, 수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대기심리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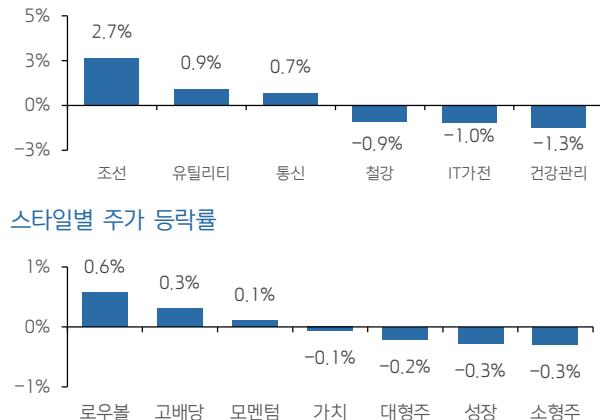
또 최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다 보니, 업종 혹은 테마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 On Device AI 와 같은 신성장 관련 혹은 에코프로모터와 같은 IPO 쪽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신규 재료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함. 그렇지만 현재는 내년 4 월 총선과 관련한 정치 테마주나 혹은 중간중간 우선주들도 급등세를 연출할 정도로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 향후 이들 신규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중형주 혹은 소형주 전반에 걸쳐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설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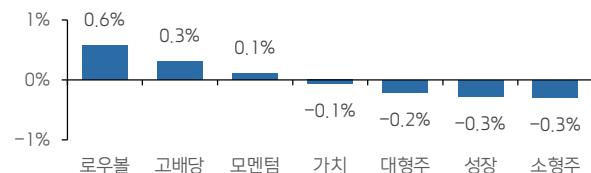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